

## 향기로운 예물

♣ **십일조헌금** 기입 085-056206-04-030(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이송이, 강윤미, 김규찬(최효자), 김근봉, 김기안(하세련), 김기택(배숙자), 김미경, 김미희, 김영삼, 김윤주, 김정자, 김정환(임영미), 김중선(박영숙), 김진희, 김춘화, 김현구(서재희), 김형국(이오순), 박권재(송영숙), 박부종(최귀남), 박순중(이송애), 박순자, 박영애, 박혜진, 백근영(윤 숙), 백성원(안지영), 석애자, 송형기(김현숙), 신세균, 심해원, 오동호(강소영), 오택현, 윤순환(민옥희), 윤영준(박진숙), 이근자, 이미영, 이소은(김준구), 이옥남, 이창규(곽정순), 이태일(송백현), 임형문(박국목), 정국순, 채희춘(황영옥), 최정희, 현윤건(이윤옥), 류승우(김외자).(총45명)

♣ **선교헌금** 기입 085-056206-04-086(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김규찬(최효자), 김근봉, 김미희, 김외자, 김정자, 김현구(서재희), 박순웅, 박순자, 박춘자, 백근영(윤 숙), 석애자, 송다혜, 신세균(유미란), 윤순환(민옥희), 이근자, 이미영, 이소연, 이태일(송백현), 정국순, 최정희, 루디아유경, 무명.(총22명)

♣ **감사헌금**  
이필래, 강영성, 김미희, 김병율(이영숙), 김순옥, 김지훈, 김현구(서재희), 박군자, 박부종(최귀남), 박영숙, 박영애, 박춘자, 방복순, 방석태(차옥자), 신민아, 오택현(김윤주), 이옥남, 이춘취, 이희환(오희경), 장성자, 전병구(이인숙), 전영선, 정경순, 정영성, 조규영(윤혜란), 채영엽, 최기훈(정계숙), 최선미, 허봉성, 황영옥, 무명.(총31명)

### ♣ 일천보제헌금

이진우, 이필래, 김민성, 김수현, 김정성, 김준현, 김지훈, 김정숙, 김춘화, 민옥희, 박은숙, 박희영, 방복순, 배병찬, 백경자, 서재희, 송백현, 신지현, 신현진, 심순옥, 안지영, 양영옥, 양일석, 이강우, 이경자, 이기자, 이노을, 이미영, 이설아, 이옥남, 이인숙, 정국순, 주성택, 최귀남, 최백현, 홍은민, 황영옥, 김민혁, 무명.(총38명)

### ♣ 월정헌금

류영철(김정숙), 박춘자, 이영숙B.(총3명)

## 주간 성경연구 · 새벽기도회 본문입니다 ·

2015년 제36주: 빌립소서 2장 19절 - 4장 23절 / 에스겔 1장 1-14절			
주 일	빌립소서 2장 19 - 30절		
월요일	빌립소서 3장 1 - 11절	목요일	빌립소서 4장 8 - 13절
화요일	빌립소서 3장 12 - 21절	금요일	빌립소서 4장 14 - 23절
수요일	빌립소서 4장 1 - 7절	토요일	에 스 겔 1장 1 - 14절

원로장로	이태일			
시무장로	정기성 윤조춘 방석태 윤병호 강영성 김병을 최기훈 윤정호 배경철 임만순			
은퇴장로	오만식 방현옥 장영원 이혜서 정공식 이원가 문영연 이일로 천세력			
교역자	부 목 사	윤희진		
	강 도 사	김성총		
	전 도 사	이필래		
	교육전도사	문수경 이송이 최유경		
찬양대	지 위 자	할 펠 루 아 : 김한나 시은 · 에 덴 : 최원지	홍 산 나 : 김안나 앤 궐 : 이난수	
	반주자	오르간	심해원	
		피아노	강민주 김미희 김상준 유광희 이주하 정혜지	
		클라리넷	박진숙 이난수	
		플룻	김민지	
	솔 리 스톱	김안나 박선희 고광훈		
선교사	파송선교사	태 국: 김정숙 수리타: 안석렬 이성옥 이집트: 김진숙 미 국: 김다나엘 최옥희	A X 국: 김해월 A X 국: 이분록 A X 국: 박동준 김명화	
		협력선교사	태 국: 박영성 정세미 멕시코: 김흥기	태 국: 박경환 이순연 A M A : 조동진
협력교회	제주 대광장로교회			
협력단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선교회(G.M.S.), 서울남노회 목양선교회, 소망교도소, 영등포시화회 용정세계선교회, 서울남노회 G.M.S., 오픈도어선교회			

2015. 8. 30 주일 예배 설교

<b>바울의 역설적 자기 이해</b>	설교: 이진우 목사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11절	
마틴 루터는 기독교의 진리를 나타냄에 역설을 사용하기를 즐겨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루터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데도 안 계신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 인이다. 그러나 성도는 모든 사람의 종이다.”와 같은 역설적인 표현으로 기독교의 진리를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도 자기를 역설적으로 이해하고 표현함으로 하나님 앞에선 자신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내가 어려서온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 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 먼저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 이미 바울은 이와 같은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가 아무것도 아닌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드러내기 위한 그의 역설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죄인입니다. 때문에 사도바울도 자신을 “죄인 중의 괴수”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일찍이 많은 철학자들이 진리를 탐구하고 논하면서 먼저 자기 자신을 바로 알아야 함을 말했습니다. 그러기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말했습니다. 성도는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알고 이해하는 것에 있어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이해와 세상의 방법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여 깨닫는 것이 중요함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이해로 사람을 판단하고 자신을 드러내려 합니다. 가운을 내세우고, 학벌을 내세우며, 경제적인 능력과 자신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빌립소서 3:4-7)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누가 자신의 가운을, 학벌을, 재물을, 능력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판단의 기준으로 자신을 만들어가기 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믿음을 세우고 은혜를 바라며 영적인 능력을 갖추는 자들이 되어야 하였습니다.

2. “나는 지극히 큰 사도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이 서신에서 “지극히 큰 사도”라는 말을 두 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지극히 큰 사도입니까? 바울은 그들과 비교하여 무엇이 부족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지극히 큰 사도보다 부족함이 없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그들과 비교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바로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바울은 그들과 비교하여 받은 사명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실 때는 그에게 맡은 사명과 직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다른 성도들과 비교하여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기 자신의 위치에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에 바울은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또 주님을 위해 수고한 자신의 희생과 노력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맺은 열매가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장차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른 자들과 비교하여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말씀으로, 또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과 은혜와 직분을 받은 자들이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신바 사명을 잘 감당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 자신을 바로 깨닫고 은혜 가운데 서기란 참 힘든 일입니다.

3. 과연 나 자신을 바로 깨달아 행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결코 높아짐도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낮아지지 않고는 높아지지 않는 것이 은혜의 법칙일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성도가 자신이 마징가인줄입니다. 자신이 없으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봉사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자신이 최고인줄 알고 자신만이 이 일들을 감당하는 줄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당신의 일들을 이 땅에 이루실 때 오직 나만을 통해 일하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지금 해야 할 일들이 있고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은혜이기에 더욱 겸손함으로 이 모든 것을 순종함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사역의 뜻대, 봉사의 뜻대, 축복의 뜻대를 옮기실 때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배우신 은혜를 깨닫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청지기로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비밀을 맡은 자에게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더욱 성령의 충만을 받아 나 자신의 부족함과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오직 부족한 자들 세워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오늘 나에게 배우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SINCE 1975

No. 41 - 36

2015. 9. 6

# 대한예수교장로회성현교회

**Sung - Hyeon Presbyterian Church**  
**표어: “우리를 회복하여 주소서!” (시편 80편 7절)**  
**목표: 1.진리 파수 2.천국일꾼 양성 3.민족 복음화 4.세계 선교**

<p><b>동산의 샘</b> A garden fountain</p>	<p><b>생수의 우물</b> A well of living</p>
---	---

<p><b>흐르는 시내</b> Flowing streams</p>	<p><b>[아가 4:15]</b></p>
--	-------------------------

<p><b>다임목사</b> Senior Pastor</p>	<p><b>이진우</b> Yee, Jin Woo</p>
--------------------------------------	------------------------------------

- 152-090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3마길 18(개봉동)
- 18Gyeongin-ro 33Ma-gil, Guro-gu, Seoul, Korea
- 교회사무실: 2613-2080 / 2683-2080 / 070-8658-2080
- 팩 스: 2689-1230
- 홈 페 이 지: www.sunghyeon.or.kr

9월 순서	1부		3부		찬양 예배		수요기도회
	기도	기도	성경본독	사회	기도	기도	기도
1주( 6월 )	김영철 집사	윤병호 장로	유석기 권사	윤준호 장로	김형국 집사	유미란 권사	
2주(13일)	윤영준 집사	강영석 장로	박금옥 권사	윤준호 장로	김영철 권사	배숙자 권사	
3주(20일)	박건일 집사	김병철 장로	이강우 장로	방석태 장로	김영철 집사	최귀남 권사	
4주(27일)	최철경 집사	최기훈 장로	이지연 권사	추 석		서재희 권사	
예배안내	강영성 김영철 최기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